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인터넷 중독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정 애* · 유 인 영**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개인용 컴퓨터와 뉴미디어 장비가 보급되면서 인터넷은 급속도로 친숙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2011년 정보통신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에서 전세계 152개국 중 1위를 차지한데 이어 OECD의 가구 초고속인터넷보급률(97.5%) 및 모바일브로드밴드 보급률, 그리고 일본 총무성의 IT국가경쟁력 지수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인터넷강국, 스마트 코리아'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National Information Agency, 2012-a).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은 지난 10년 동안 33.3%, 이용자 수는 약 2배(1.95배) 증가하여, 2011년 전체 인구 중 78.0%로 전년도 보다 0.2% 증가하고, 연령별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National Information Agency, 2012-a).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확산 등 인터넷사용의 접근성과 이용성이 높아져 인터넷의 영

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필수적 요소가 되어가면서 개인의 삶 뿐 만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에 새로운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자유로운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창구로, 학습, 여가, 오락의 도구로 사용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 창출하는 매체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은 2011년 7월말 만 3세 이상 인구에서 78.0%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보면 만 3~5세 유아 인터넷 이용률은 66.2%, 3~9세 아동 86.2%, 10대 99.9%, 20대 99.9%, 30대 99.4%, 40대 88.4%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별로는 학생의 인터넷이용률은 거의 100%에 달하고 있으며, 직장인의 인터넷이용률은 79.9%, 주부의 이용률도 66.3%로 조사되었다. 스마트폰 이용률도 2011년 39.2%로 연령별로 12~19세 40.0%, 20대 69.6%, 30대 51.8%, 40대 27.2%, 50대 10.0%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SNS 이용률은 일반국민 31.9%가 이용하는 것으로, 6세 이상 인터넷이용자의 66.5%가 최근 1년 이내 SNS를 이용하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인터넷이용자 89.7%가 SNS를 이용하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전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yiny@jj.ac.kr)

투고일: 2012년 11월 9일 심사완료일: 2012년 11월 18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7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In-Young Yoo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eonju University
303 Cheonjam-ro, Wansan-gu, Jeonju, 560-759, Korea
Tel: 82-63-220-2759 Fax: 82-63-220-2054 E-mail: yiny@jj.ac.kr

것으로 나타났다(Korea Communication,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2).

인터넷 환경의 성장은 세계를 하나로 묶어 동시간에 세계를 무대로 정보를 탐색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최근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은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최초 인터넷 이용 시기는 일반사용자군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만7~9세) 15.5%, 초등학교 고학년시기(만10~12세) 12.8%, 중학생시기(만13~15세) 13.0%, 고등학생시기(만16~19세) 15.0%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중독자군은 유치원시기(만4~6세) 8.1%,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25.4%,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17.0%로 중독자군의 최초 인터넷 사용시기가 더 빠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처음으로 겪기 시작한 시기는 만 13-15세가 25.9%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인터넷 이용기간은 8.04년 이었다. 인터넷 중독의 연령별 결과를 보면 10대의 인터넷 중독률이 10.4%로 가장 높았으며, 이들의 고위험군 비율도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은 인터넷 중독자의 25.0%가 스마트폰 중독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의 거의 절반가량(43.8%)이 스마트폰 중독 특성을 보여 스마트폰중독과 인터넷 중독 간의 연관성을 볼 수 있으며, 청소년(11.4%)이 성인(7.9%)보다 높은 스마트폰 중독률을 나타냈다(National Information Agency, 2012-b).

이러한 인터넷 중독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 학업 영역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면부족, 체력저하, 우울, 대인기피의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우울증, 강박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심각한 정신질환까지 초래한다. 아동은 스스로 존재의 주체임과 동시에 속한 사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이므로 이들의 성장발달은 그들이 속한 사회의 건강문제는 물론 사회자원, 구조 및 가치체계를 반영한다(Ahn & Choi, 2008).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시기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자아조절 능력도 발달되지 않아 실제현실과 다른 온라인상의 가상세계에 대해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시기이며, 주변에서 제공되는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로 인터넷의 위험요인이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oi, 2009). 그러나 위험상황에 놓인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보호요인에 의해 문제행동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 즉 개인,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Jessor, 1993; Kim, 2004; Wolin & Wolin, 1993). 위험요인이라 함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 환경 중에서 발달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더 심각한 상태로 만들거나 또는 문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요인이며(Kirby & Fraser, 1997), 보호요인은 위험을 완충시키거나 중단시키고 예방하는 것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경험할 가능성을 경감시키는 요인을 말한다(Cowan, Cowan, & Schulz, 1996). 이렇듯 청소년에게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동시에 존재하고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를 통하여 입증하였으며(Garmezy, 1993; Wolin & Wolin, 1993), 각 요인은 한 가지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닌 개인, 가족, 사회, 환경영역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최근 들어 사람들과 환경들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을 다루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생태체계학적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Greene, 1999). Lee (2011)와 Ju (2011)는 생태학적인 접근방법으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을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환경적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청소년들은 충동성, 우울, 공격성, 불안, 자기통제력 부족, 사회성 결여와 같은 개인적 요인과 한부모 가정, 부적응적 가족관계, 낮은 가족지지와 같은 가족요인 및 학교부적응, 또래관계 미성숙, 낮은 친구관계의 질, 집단 따돌림과 같은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인터넷 중독에 빠진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청소년과는 다른 흥미와 특성을 지닌 초등학교 고학년인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체계학적 관점에서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6학년은 아직 신체적, 심리적으로 성숙되지 않아 인터넷으로 인한 부작용의 폐해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주변체계의 상호작용을 보고자 하는 생태체계학적 관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인터넷 사용실태와 인터넷 사용관련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살펴보고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 목적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인터넷 사용실태를 파악한다.
-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인터넷 중독정도를 파악한다.
- 셋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인터넷 사용관련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 넷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인터넷 중독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인터넷 사용실태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주변체계의 상호작용을 보고자 하는 생태체계학적 관점에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탐색하고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북부 U시에 위치한 임의 추출된 5개 초등학교에서 임의 추출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2년 6월 25일부터 7월 14일 동안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각 학교장과 보건교사의 허락을 구하고, 보건교사의 보건교육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동의를 구한 후 설문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기보고식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 Analys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시 중간크기의 effect size .15, 유의수준(α) .05, 검정력 0.95, 독립변수 14개를 포함하도록 계산한 결과 필요한 표본크기는 최소 194명이었다(Faul, Erdfelder, Lang, & Bunchner, 2007). 본 연구에서는 총 254개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한 238개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인터넷 사용실태

인터넷 사용실태는 Lee (2011)와 National Information Agency(2012-b)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8개 문항으로 인터넷 사용경험, 인터넷 사용 장소, 컴퓨터 설치장소, 인터넷 사용용도, 인터넷을 더 사용하게 된 상황, 평소 인터넷 사용정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유무, 인터넷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었다.

2) 인터넷 중독정도

인터넷 중독은 특정물질의 유입없이 충동조절장애(impulsive control disorder) 혹은 습관성 행동장애(addictive behavior disorders)가 야기되는 행위 중독의 일종을 말한다(Lee, 2011).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정도는 National Information Agency (2009)에서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2단계 고도화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의 동형검사 A, B, C형 중 C형 척도를 사용하여 인터넷 중독 수준을 평가하였다. 인터넷 중독정도의 측정은 전체 점수의 합을 합산하는 방식과 하위 변인인 일상생활장애(요인 1), 금단(요인 2),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요인 3), 일탈 행동(요인 4), 내성(요인 5)의 수준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점수에 따라 고위험사용자군(전체총점 42점 초과이거나 요인 1이 12점 초과, 요인 2가 8점 초과, 요인 5가 10점 초과),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전체총점 38점초과-42점 이하이거나 요인 1이 10점 초과-12점 이하이거나 요인 2가 7점 초과-8점 이하이거나 요인 5가 9점초과-10이하), 일반사용자군(전체총

점 38점 이하이거나 요인 1이 10점 이하, 요인 2가 7점 이하, 요인 5가 11점 이하)으로 분류된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도구의 하위영역, 문항 수, 신뢰도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Scale

Subjects	Number	Cronbach's α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6	.78
Withdrawal	4	.83
Virtual Interpersonal Relationship	4	.81
Deviate Behavior	2	.72
Tolerance	4	.89
Total	20	.88

3) 인터넷 사용관련 보호요인

보호요인은 위험을 완충시키거나 중단시키고 예방을 하는 것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경험할 가능성을 경감시키는 요인이다(Cowan et al., 1996).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소년 인터넷 사용관련 보호요인은 개인(자기통제력), 가족(부모의 적절한 감독), 학교(교사의지지, 학교에 대한 흥미), 친구(또래지지)등의 보호요인 척도로 측정하였다.

(1) 개인 보호요인(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 측정을 위해 Gottfredson & Hirschi (1990)의 자기통제력 척도를 Nam (1999)가 재구성한 것을 Lee (2011)가 사용한 척도로 총 20문항,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2011)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4이다.

(2) 가족 보호요인(부모의 적절한 감독)

가족보호요인 척도는 Lee (2004)의 연구에서 Lee (2011)가 재구성한 부모의 적절한 감독에 대한 7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적절한 감독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2011)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75이다.

(3) 학교 보호요인(교사의지지, 학교에 대한 흥미)

학교보호요인 척도는 Koo 등(2005)의 연구에서 Lee (2011)가 재구성한 것으로 교사의 관심과 지지, 학교에 대한 흥미로 이루어진 9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보호요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2011)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79이다.

(4) 친구 보호요인(또래지지)

친구 보호요인 척도는 Koo 등(2005)의 연구와 Lee (2004)의 연구를 Lee (2011)가 재구성한 것으로 친한 친구와 또래지지로 이루어진 9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에서의 보호요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2011)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7이다.

4) 인터넷 사용관련 위험요인

위험요인이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 환경 중에서 발달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더 심각한 상태로 만들거나 또는 문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요인이다(Kirby & Fraser, 1997).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인터넷 사용관련 위험요인으로 개인(공격성), 가족(부정적 의사소통,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지지결여), 학교(낮은 학업관심, 부정적 교사관계), 친구(부정적 또래 압력과 접촉)등의 위험요인 척도로 측정하였다.

(1) 개인 위험요인(공격성)

공격성 척도는 Lee (2006)이 재구성한 것을 Lee (2011)가 사용한 척도로 5문항,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2011)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2이다.

(2) 가족 위험요인(부정적 의사소통,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지지결여)

가족 위험요인 척도는 Koo 등(2005)의, Lee (2006), Ji, Lee, Lee, Choi,와 Jung 등(2003)의 연구에 기

초하여 Lee (2011)가 재구성하여 사용한 척도로 8문항,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위험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2011)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다.

(3) 학교 위험요인(낮은 학업관심, 부정적 교사관계)
학교 위험요인 척도는 Koo 등(2005), Lee (2006), Kim (2004)의 연구에 기초하여 Lee (2011)가 재구성하여 사용한 척도로 8문항,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위험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2011)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3$ 이다.

(4) 친구 위험요인(부정적 또래 압력과 접촉)
또래 위험요인은 Cha 등(2009)이 개발한 척도를 Lee (2011)가 사용한 척도로 17문항,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에서의 위험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2011)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7$ 이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터넷 사용실태와 인터넷 중독정도, 인터넷 사용 관련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인터넷 사용실태에 따른 인터넷 중독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인터넷 중독정도와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단계 중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모두 초등학교 6학년 234명을 대상

으로 하였고, 남학생이 109명(46.6%), 여학생이 125명(53.4%)이었다. 대상자의 86.8%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고, 학생들이 지각한 경제수준은 56.8%인 절반이상이 '중정도'라고 응답하였다. 가족 수입원은 아버지인 경우가 42.7%,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맞벌이인 경우가 48.7%였다. 학생들이 스스로 지각한 학업성적은 상위권인 26.9%, 중위권이 63.7%, 하위권이 9.4%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34

Variables		n(%)
Gender	Male	109(46.6)
	Female	125(53.4)
Type of living arrangement	With both parents	203(86.8)
	With Single parent	21(9.0)
	Others	10(4.3)
Economic status	High	88(37.6)
	Middle	133(56.8)
	Low	13(5.6)
Source of incomes	Father	100(42.7)
	Mother	15(6.4)
	Parents	114(48.7)
	Others	5(2.1)
Academic achievements	High($\geq 30\%$)	63(26.9)
	Middle	149(63.7)
	Low($\leq 30\%$)	22(9.4)

2. 인터넷 사용실태와 인터넷 중독정도

연구대상자의 인터넷 사용실태와 중독정도는 Table 3과 같다. 인터넷 이용기간은 48.7%가 3년미만이었 고, 절반 이상인 51.3%가 3년 이상 이용했으며, 이 중 7년 이상 이용한 대상도 11.1%였다. 인터넷을 주 로 사용하는 장소는 주로 자기집이 89.3%였다. 컴퓨터 설치 장소는 거실이 35.5%로 가장 많았고 본인방이 29.9%, 형제 자매방 12.8%, 부모님 방이 10.7%였다. 인터넷 사용 목적은 '게임'이 38.5%로 가장 많았고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한 검색'이 34.6%였고 그 외 메신저/채팅, 이메일, 홈페이지 관리, 동호회, 교육 /학습 등이 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상황은 73.9%가 '시간이 남아서 심심할 때'였다.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 은 61.1%가 받은 적이 없었다. 인터넷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수면부족, 시력 저하 등의 건강악화'로

Table 3. Condition of the Internet Use and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N=234

Variables		n(%) or Mean±SD
Period of internet use (year)	< 1	66(28.2)
	1 ~ 3	48(20.5)
	3 ~ 5	52(22.2)
	5 ~ 7	42(17.9)
	≥ 7	26(11.1)
Internet access locations	Home	209(89.3)
	PC room	11(4.7)
	Others(friend's home, school, etc.)	14(6.0)
Location of computer	Room of one's own	70(29.9)
	Living room	82(35.0)
	Parents room	25(10.7)
	Brother's or sister's room	30(12.8)
	Others	27(11.5)
Purpose of internet use	Exploration of information	81(34.6)
	E-mail	2(0.9)
	Messenger/Chatting	15(6.4)
	Game	90(38.5)
	Community	6(2.6)
	Download of MP3, movies, picture	10(4.3)
	Homepage / blog	14(6.0)
	Education/ Learning	9(3.8)
	Others	7(3.0)
Situation to use the internet more	Bored	173(73.9)
	Lonely or depressed	22(9.4)
	Others	39(16.7)
Experience of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education	Yes	91(38.9)
	No	143(61.1)
Problems that can occur when use the internet	Health problem(lack of sleep, visual problem, etc.)	84(35.9)
	Disturbance of daily function	25(10.7)
	Stress	10(4.3)
	Contract of social life	8(3.4)
	Increased costs due to the use of the internet	5(2.1)
	Change of character	26(11.1)
	Confusion between reality and internet virtual space	45(19.2)
	Others	31(13.2)
Perceived degree of internet use	No problem at all	110(47.0)
	Almost no problem	88(37.6)
	Little serious condition	35(15.0)
	Very serious condition	1(0.4)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Total	23.94±5.77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7.18±1.85
	Withdrawal	4.54±1.23
	Virtual Interpersonal Relationship	4.82±1.67
	Deviate Behavior	2.27±0.67
Classification of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Tolerance	5.12±1.99
	Regular users	216(95.6)
	Potentially risk users	7(3.1)
	High-risk users	3(1.3)

응답한 대상자가 3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현실과 인터넷 가상공간의 혼돈'이 19.2%, '성격변화'가 11.1%, 학교공부와 같은 생활 문제가 10.7%였다. 연구대상자가 지각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정도는 '조금 심각한 상태'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5.7%였고,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0.4%였다.

인터넷 중독정도 평가 도구에 의한 인터넷 중독 정도는 23.94 ± 5.77 였고, 하위영역별로 일상생활장애는 7.18 ± 1.85 , 금단은 4.54 ± 1.23 , 가상적 대인관계지향성은 4.82 ± 1.67 , 일탈행동은 2.27 ± 0.67 , 내성은

5.12 ± 1.99 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정도 분류에 의한 사용자군은 일반사용자군이 95.6%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 3.1%, '고위험 사용자군'이 1.3%로 나타났다(Table 3).

3. 일반적 특성과 인터넷 사용실태에 따른 인터넷 중독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정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인터

Table 4.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 of Internet Use
N=234

Variables		n	Mean±SD	t or F(p)	Post hoc
Gender	Male	109	24.76±6.56	2.06(.041)	
	Female	125	23.21±4.89		
Type of living arrangement	With both parents	203	23.92±5.97	0.04(.966)	
	With Single parent	21	23.85±4.34		
	Others	10	24.40±4.52		
Economic status	High	88	22.93±4.93	2.37(.096)	
	Middle	133	24.44±6.15		
	Low	13	25.53±5.77		
Academic achievements	High(≥ 30%)	63	23.14±5.50	0.81(.444)	
	Middle	149	24.21±5.76		
	Low(≤ 30%)	22	24.31±5.77		
Period of internet use (year)	< 1 ^a	66	21.84±3.61	3.46(.009)	a(e)
	1 ~ 3 ^b	48	24.81±6.88		
	3 ~ 5 ^c	52	24.21±5.10		
	5 ~ 7 ^d	42	23.74±6.39		
	≥ 7 ^e	26	25.77±7.07		
Internet access locations	Home ^a	209	24.00±5.84	3.09(.047)	b)c
	PC room ^b	11	26.54±6.50		
	Others(friend's home, school, etc.) ^c	14	20.93±1.94		
Location of computer	Room of one's own ^a	70	23.65±5.07	1.69(.154)	
	Living room ^b	82	23.22±4.58		
	Parents room ^c	25	24.56±4.79		
	Brother's or sister's room ^d	30	26.26±8.27		
	Others ^e	27	23.66±7.49		
Purpose of internet use	Exploration of information ^a	81	21.58±3.17	14.42(<.000)	a < b,c
	Game ^b	90	26.07±6.75		
	Others(E-mail, blog, etc.) ^c	63	23.90±5.74		
Situation to use the internet more	Bore ^d	173	23.76±5.86	1.24(.292)	
	Lonely or depressive ^d	22	25.77±4.95		
	Others	39	23.64±5.77		
Experience of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education	Yes	91	24.11±6.37	0.37(.714)	
	No	143	23.82±5.38		

Post hoc: Scheffe's test

넷 중독정도 점수가 높았다($t=2.06, p=.041$). 인터넷 사용특성에 따른 차이는 인터넷 이용기간($F=3.46, p=.009$),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장소($F=3.09, p=.047$), 인터넷의 주된 사용목적($F=14.42, 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컴퓨터를 7년 이상 오랜 이용이 있는 집단, 인터넷을 주로 PC 방에서 사용하는 집단, 인터넷을 주로 게임을 위해 사용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인터넷 중독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able 4).

4. 인터넷 사용 관련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연구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관련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은 Table 5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관련

보호요인으로 친구요인(또래지지)가 평균 3.22로 가장 높았고, 학교 요인(교사의지지, 학교에 대한 흥미)가 3.18, 가족 요인(부모의 적절한 감독)이 3.13으로 나타났다고, 개인 요인(자기 통제력 결여)가 2.8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관련 위험요인은 개인 요인인 공격성 정도가 평균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 요인(낮은 학업관심, 부정적 교사관계)이 평균 1.73, 친구 요인(부정적 또래 압력과 접촉)이 평균 1.54로 나타났고 가족 요인(부정적 의사소통,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지지결여)가 평균 1.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5).

5. 인터넷 중독정도와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과의 상관관계

Table 5. Protective and Risk Factors Related to Internet Use

N=234

Variables	Mean±SD
Protective factors of internet addiction	
Personal protective factor(self control)	2.89±0.39
Family protective factor(appropriate supervision of parents)	3.13±0.49
School protective factor(support from teacher, school interest)	3.18±0.45
Peer protective factor(support from peer)	3.22±0.50
Risk factors of internet addiction	
Personal risk factor(aggressiveness)	2.25±0.65
Family risk factor(negative communication, lack of economic and emotional support)	1.44±0.51
School risk factor(low academic interest, negative teacher relationship)	1.73±0.52
Peer risk factor(negative peer pressure)	1.54±0.43

Table 6. The Relationships among the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Protective and Risk Factors

N=234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r(p)$
Protective factors of internet addiction	
Personal protective factor (self control)	-.349(<.000)
Family protective factor (appropriate supervision of parents)	-.256(<.000)
School protective factor (support from teacher, school interest)	-.348(<.000)
Peer protective factor (support from peer)	-.310(<.000)
Risk factors of internet addiction	
Personal risk factor (aggressiveness)	.309(<.000)
Family risk factor (negative communication, lack of economic and emotional support)	.246(<.000)
School risk factor (low academic interest, negative teacher relationship)	.284(<.000)
Peer risk factor (negative peer pressure)	.281(<.000)

Table 7. Effective Variables on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N=234

Variables	β	t	p
Degree of internet use	0.362	6.40	<.000
Peer protective factor (support from peer)	-0.159	-2.57	.009
Personal protective factor(self control)	-0.146	-2.12	.019
Internet access location (Home=0, PC room=0, Others(school, friends home, etc.)=1)	-0.122	-2.22	.027
Family risk factor (negative communication)	0.123	1.99	.041
Constant	28.497	8.17	<.000

$R^2 = .329$
 $F(p) = 22.33$
 (<.000)

연구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정도는 보호요인인 가족 요인($r = -.256$, $p < .000$), 학교요인($r = -.348$, $p < .000$), 친구 요인($r = -.310$, $p < .000$), 개인 요인(자기통제력)($r = .349$, $p < .000$)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반면 위험요인인 가족 요인($r = .246$, $p < .000$), 학교 요인($r = .284$, $p < .000$), 친구 요인($r = .281$, $p < .000$), 개인 요인(공격성)($r = .309$, $p < .000$)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6).

6. 인터넷 중독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터넷 중독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단계 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은 일반적 특성과 인터넷 사용실태에 따른 인터넷 중독정도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왔던 성별, 인터넷 사용경험, 인터넷 주된 이용 장소, 인터넷의 주된 사용목적과 인터넷 사용정도, 인터넷 사용관련 4가지 보호요인과 4가지 위험요인을 투입하였다. 독립변수 중 명목척도나 서열척도로 측정된 변수(성별, 인터넷 사용경험, 인터넷 주된 이용 장소, 인터넷의 주된 사용목적)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또한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문제 진단방법(Belsley, Kuh & Welsch, 1980)으로 조건지수(Condition Index)를 살펴본 결과,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기준인 30보다 낮은 값을 보이고 있어 회귀모형으로 적합하였다. 분석결과 인터넷 중독정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인터넷 사용정도, 친구 보호요인, 개인 보호요인(자기통제력), 인터넷의 주된 사용 장소, 가족 위험요인으로 32.9%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인터넷 사용정도가 심각하다

고 지각하고, 친구 보호요인(또래의지지)이 결여될수록, 개인 보호요인(자기통제력)이 약할수록, 인터넷의 주된 사용 장소가 자기집이나 PC방인 경우, 가족 위험요인(부정적 의사소통이나 정서적 지지결여)이 클수록 인터넷 중독정도가 높았다(Table 7).

IV. 논 의

본 연구는 인터넷 사용실태와 인터넷 사용관련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및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의 습관은 정신건강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건강습관을 기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사회적 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로(Ahn & Choi, 2008; Cho, Chon, & Kim, 2006) 급증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인터넷 중독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2011년 초고속인터넷 가구보급률 97.5%로 세계 1위이며, 만 3세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도 78.0%, 이용자수 3,718만명에 달한다. 그중 10대와 20대의 인터넷 이용율은 99.9%로 거의 100%에 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인터넷 중독률은 10.4%로 잠재적 위험군 7.5%, 고위험군 2.9%로 나타났다(National Information Agency, 2012-a).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중독률이 4.4%로 잠재적위험군 3.1%, 고위험군 1.3%로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2011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서 유·아동(만5~9세) 인터넷 중독률이 7.9%로 성인(6.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Jung과 Shim (2012)의 연구에서

인터넷중독률이 14.2%로 잠재적위험군 8.1%, 고위험군 6.1%로 나타나 인터넷중독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게임이 38.5% 가장 높았으며,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한 검색으로 34.6%로 나타나, 2011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서의 청소년의 인터넷 주 용도로 온라인게임이 54.0%, 일반적인 웹서핑 28.5% 순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다. 이는 Jang (2009)의 연구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초등학생들의 컴퓨터 게임빈도가 학생 전체의 반을 넘고 매일하는 학생이 1/4가량이 되며 3시간이상 게임을 하는 경우가 11.3%로 나타나 인터넷 이용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고학년이 될수록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09; Lee, Lee, & Hwang, 2010). 그리고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예방교육을 61.1%가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차원의 예방교육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게임 과몰입 상담 치료센터 등을 지역별로 개설·운영하여 청소년 치유 서비스 및 예방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인터넷 사용실태에 따른 차이는 인터넷 이용기간, 주로 사용하는 장소, 주된 사용용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7년 이상 오랜 이용기간이 있으며, 인터넷을 주로 PC방에서 사용하며, 게임을 많이 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인터넷 중독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성별차이에 있어 인기있는 인터넷 게임인 격투, 전쟁, 스포츠 등의 남학생이 좋아하는 관심사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Lee (2011)의 연구에서는 성별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인터넷을 오랜 기간 이용하고 PC방을 이용하는 집단에서 인터넷 중독정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며, Ju (2011)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에서, 인터넷사용경력이 많은 집단, PC방 이용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인터넷 중독정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연구에서(Jung & Shim, 2012)도 성별, 사용목적, 사용장소 등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관심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건교육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있어서 Lee (2011)의 연구에서는 보호요인으로 개인요인의 자기 통제력과 학교요인의 교사의 지지 등 2개 변인이 유의하였고, 위험요인으로 학교요인의 낮은 학업성적, 가족요인의 부정적 의사소통, 개인요인의 공격성, 또래요인의 부정적 또래압력 등 총 4개 변인이 유의하였다. 또한 학령기 구분에 따른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초등학생에서는 학교위험요인의 낮은 학업성적이 22%의 설명변량을 나타냈으며, 보호요인과는 부적관계를 위험요인과는 정적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보호요인 중 친구요인(또래지지)과 개인요인(자기통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험요인은 가족요인(부정적 의사소통,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지지결여)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결과 순서를 보여주었으나, 인터넷 중독 정도와 요인간 상관성에 있어서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Ju (2011)의 연구결과와는 보호요인 중 친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감성과 충동조절, 낙관주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위험요인으로는 충동성과 인터넷에 대한 친구의 영향력이 인터넷 중독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위험요인의 감소나 제거 보다는 보호요인인 친구요인(또래지지)과 개인요인(자기통제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더 줄 수 있는 바로 학교생활 및 방과 후 생활에서 건전한 놀이 활동이나 또래 집단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자기통제력 향상을 위한 자기조절 인지행동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는 바이다. 초등학생은 일생 중 심신의 발달이 가장 활발하고, 일생동안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 및 행위가 발달하는 시기이다. 또한 부모나 가정의 의존성이 매우강하여 이 때 형성된 생활습관은 일생동안 지속되므로(Lee & Kim, 2004) 가족기능의 강화가 중요하다. 인터넷 사용관련 가족위험요인(부정적 의사소통,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지지결여)의 제거를 위해 가족치유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운영하여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

했다. 현재 2011년도 기준으로 전국 164개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가 운영 중이며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일부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조기선별검사와 인터넷 중독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와 적극적인 상호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역할 활성화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인터넷 사용실태와 인터넷 중독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주변체계의 상호작용을 생태체계학적 관점에서 개인, 가족, 학교, 친구의 다양한 부분에서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인터넷 중독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사용기간은 절반이상인 51.3%가 3년 이상 이용하였으며, 그 중 7년 이상인 대상은 11.1%였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장소는 자기집(89.3%)이 가장 많았으며, 사용 목적은 '게임' 38.5%, '원하는 정보 검색'이 34.6% 많았으며,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61.1%가 받은 적이 없었다. 인터넷 사용시 발생하는 문제로 '수면부족, 시력저하 등의 건강악화'가 35.9%, '현실과 인터넷 가상공간의 혼돈'이 19.2%로 많았으며, 사용정도에서 '조금 심각한 상태'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5.7% 이었다. 인터넷 중독률은 4.4%로 '잠재적위험 사용자군'이 3.1%, '고위험 사용자군'이 1.3%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는 성별, 인터넷 사용실태에 따른 차이는 인터넷이용기간, 사용 장소, 사용용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보호요인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위험요인과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인터넷 사용관련 보호요인으로 친구요인(또래 지지)이 평균 3.22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요인인 자기통제력이 2.89로 가장 낮았다. 위험요인으로는 개인요인인 공격성 정도가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족요인(부정적 의사소통,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지지결여)이 1.44로 가장 낮았다. 인터넷 중독 정도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 결과 인터넷 사용정도, 친구 보호요인(또래지지), 개인 보호요인(자기통제력), 인터넷의 주된 사용 장소, 가족 위험요인으로 32.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초등학생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교육 및 친구(또래)와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되며, 부모들의 관심과 가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등 부모, 학생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와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상호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활성화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hn, Y. M., Choi, S. H. (2008). Physical Size and Body Surface Area of Children. *Journal of Korean Society Living Environmental System.*, 15(4), 488-495.
- Belsley, D. A., Kuh, E. & Welsch, R. E. (1980). *Regression Diagnostics: Identifying influential data and sources of collineality*. New York: John Wiley.
- Cha, M. H., Cho, B., Kim, I. K., Han, S. C., Yang, J. K., & Jung, K. Y. (2009).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support plan of crisis students*.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Cho, C. M., Chon, M. Y. & Kim, M. H. (2006). The Relationships among Economic Status, Health Status and Health Promotion Behaviour in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20(1), 95 -103.
- Choi, M. H. (2009). *The Study on relationship among computer game addiction mental health and adjustment to school life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Cowan, A .P., Cowan, P. C., & Schulz, S .M. (1996). *Thinking about risk and resilience*

- in families*. In Hetherington, E.M. Blechman, & A. E. Mahwah(eds), stress, coping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families.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Publishers.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nchner, A. (2007).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chem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 39, 175-191.
- Garmezy, N. (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Gottfredson, M,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eene, R. R. (1999). *Human behavior theory and social work practice*. Hawthorne, NY: Aldine de Gruyter.
- Jang, G. Y.(2009). *The current situ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mputer game addiction: and the relationship of computer Game addiction with self-control and adjustment of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 Jessor, R. (1993). Successful adolescent development among youth in high-risk settings. *American Psychologist*, 48(2), 117-126.
- Ji, S. H., Lee, E. K., Lee, J. E., Choi, S. M., & Jung C. S. (2003). *A longitudinal study of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and development of intervention strategy III*.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 Ju, S. J. (2011). *A Study on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that determine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 Jung, E. S., Shim, M. S. (2012). Family function and Internet addiction in low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 Public Health Nursing*, 26(2), 328-340.
- Kim, T. H. (2004). *The effects of hope and meaning of life on adolescent's resil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Kirby, L. D. & Fraser, M. W. (1997).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 An ecological perspective*.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
- Koo, B. Y., Kum, M. J., Kim, D. I., Kim, D. M., Nam, S. I., et al. (2005). *A study of support model development for crisis juveniles*. Government Youth Commission: Seoul
- Korea Communication,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2). *2011 Annual report on the status of using Internet*.
- Lee, A. R.(2004). *An Analysis of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juvenile delinquen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on.
- Lee, H. Y. & Kim, C. N. (2004). The study of performance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8(1), 119 -131.
- Lee, J. A., Lee, Y. M. & Hwang, S. S. (2010). A study on healthy lifestyl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sing school health survey. *Journal of Korean Society Living Environmental System*, 17(6), 659-666.
- Lee, J. K. (2011). *Study on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of Internet addiction of the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Gyeongbuk.
- Lee, S. H. (2006). *A study on the project of reinforcing protective factors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Gyeongbuk.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2012 mental health service guide*. Seoul: Author
Nam, H. M.(1999).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self-control and friend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problem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Information Agency. (2009). *A second study on the follow up study of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scale. Seoul: Author
National Information Agency. (2012-a). *2012' National Informatization White Paper*. Seoul: Author
National Information Agency. (2012-b). *2011' Annual report on the current Status of Internet Addiction*. Seoul: Author
Wolin, S. J. & Wolin, S. (1993). *The resilient self: how survivors of troubled families rise above adversity*, NY: Villiard Books.

ABSTRACT

Factors Influencing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in Higher Grade Students at an Elementary School

Lee, Jung-A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bok University)

Yoo, In-You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eonju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and condition of internet use in higher grade students at an elementary school. **Method:** The subjects consisted of 234 sixth grade students at an elementary school in Gyeonggido. SPSS/Win18.0 was used for analysis of data. **Results:** Among the subjects, 51.3% had used the internet for more than three years, 89.3% used the internet in their home, and 38.5% used the internet for games. In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3.1% were potential risk users and 1.3% were high risk users.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gender, period of internet use, internet access location, and purpose of internet use.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protective factors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risk factors.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were degree of internet use, peer protective factor(support from peer), personal protective factor(self-control), internet access location, and family risk factor(negative communication). These factors accounted for 32.9% of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Conclusion:** Strategies are needed for improvement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peer group and family communication and to encourage self-control for prevention of internet addict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

Key words :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Elementary School Students